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5년 4월 27일(일) 제1538호



온누리사랑채버 현악4중주팀이 시카고온누리교회에서 연주하고 있다.



## 5월 3~4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지정 차량만 교회주차장 이용

5월 3일(토)과 4일(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이다. 창조 세계를 아끼고 보호하며, 지역 사회를 배려하는 날이다.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5월 3일(토) 오전 8시부터 4일(일) 오후 4시까지 교회주차장 이용을 제한한다(캠퍼스는 상황에 맞게 진행). 자가용은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 주변 아파트나 상가, 도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교회 주차장은 거동이 불편한 성도,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36개월 이하 동반 자녀가 있는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차량은 주차장 입구에서 자녀 3명 탑승을 확인하고 입차할 수 있다. 서들은 일요일에만 운영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이촌역, 국립중앙박물관, 거북선 나루터,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양재역 환승주차장을 오간다.

/ 홍하영 기자

##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풍당'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CGN이 주최하는 행복한 가정 레이스 '2025 달려라풍당' 후원 챌린지(이하 '달려라풍당')가 5월 10일(토)부터 24일(토)까지 열린다. 참가신청은 5월 9일(금)까지 하단 QR코드나 달려라풍당 홈페이지(runfondant.kr)에서 하면 된다.

'달려라풍당'은 가족, 공동체와 함께 운동하며 후원하는 챌린지다. 후원금 전액 가정과 차세대를 위한 기독 OTT '풍당' 콘텐츠 제작 및 허입에 사용된다. 2025 달려라풍당에는 걷기, 자전거, 러닝 등의 운동을 선택하고, 목표 거리를 설정한 다음 자율적으로 후원금을 약정해서 참여하면 된다. 거리 또는 걸음 수는 본인 스마트폰에 탑재된 앱으로 측정하면 된다. 측정된 거리는 하단 QR코드로 접속해서 구글폼에 등록하면 된다.

5월 10일(토)에는 '달려라풍당데이' 오프닝 행사가 오전 10시 15분 서빙고, 오전 10시 20분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02-796-9800

참가신청 기록등록

/ 홍하영 기자

## 당회

일시: 2025년 5월 3일(토) 오전 6시  
장소: 서빙고 비전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명예, 협동장로  
안건: 2024년 감사보고

# 서로 어울리고, 함께 바라보다!

## 4월 26~27일 '장애인주일' ... 풍성한 기념행사 이어져 특순, 인식개선 캠페인, 교사 모집, 굿월스토어, 희망콘서트

4월 26일(토)과 27일(일)은 '장애인주일'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리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뜻깊은 날이다. 온누리교회 곳곳에서 장애인주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어진다. 4월 27일(일) 온누리교회 일요일 예배에서는 장애인들이 특순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일요일 1부 사랑채버, 2부 온사랑합창단, 3부 사랑채버, 4부와 SNS청년부예배에서 사랑부 워십댄스팀이 특순한다. 양재온누리교회 일요일 2부 양재 사랑부, 3부 양재 예수사랑부, 4부 온사랑합창단이 찬양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도 열린다. '배려', '친절', '관심', '사랑'을 주제로 만든 포스터를 교회 곳곳에 전시한다.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성도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한다. 바른 명칭 사용하기, 돌발행동 보이는 장애인 이해하기, 보호

자 없이 혼자 다니는 발달장애인 안내하기, 엘리베이터에서 장애인 만났을 때 양보하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배려하기 등을 소개한다.

장애인 예배 교육공동체 '사랑부' 교사 모집도 한다. 서빙고, 양재, 강동, 부천, 인천온누리교회 사랑부 교사를 모집한다. 온누리사랑채버 남자 교사도 모집한다. 각 캠퍼스 로비에 설치하는 홍보데스크나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사랑부 예배는 서빙고 꿈사랑부 오전 9시, 사랑부 오전 9시, 예수사랑부 오전 11시 30분, 누리사랑부 오전 11시, 양재 사랑부 오전 9시, 예수사랑부 오전 11시 30분, 강동 사랑부 오전 11시 30분, 부천 사랑부 오전 11시 30분, 인천 사랑1부 오전 9시, 사랑2부 오전 11시 30분에 드린다. 사랑부 신입교사 교육도 한다. 5월 11일, 18일, 25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박인숙 교사(특수교육전공, 교

육학박사, 예수사랑부 교사)가 '발달장애 이해하기', '긍정적 행동지원', '장애 자녀 양육과 가족과의 협력'을 주제로 강의한다.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도 한다. 4월 27일(일) 서빙고와 양재, 부천, 대전, 평택온누리교회에 설치되는 굿월스토어 기증함에, 인천, 남양주, 강동온누리교회 지정 장소로 기증품을 가져오면 된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희망콘서트 'Wonderful Life'가 지난 4월 25일(금)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에서 열렸다. 가수 이무송 집사가 사회를 보고, 가스펠 보컬 밴드 크룩스, 색소폰 연주자 김선민, 가수 신인선 등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하고, 온사랑합창단과 사랑채버가 공연했다.

한편 온누리사랑채버 현악4중주팀은 효성그룹 후원으로 4월 7일(월)과 15일(화) 미국 Judson대학교와 시카고온누리교회에서 연주회를 했다.

문의: 02-3215-326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인천온누리교회 창립 19주년

인천온누리교회 창립 19주년 감사예배를 4월 27일(일) 오전 11시 30분 본당에서 드린다.

이재훈 위임목사 축하영상 상영, 김승수 목사 설교, 인천 사랑부 특순, 케이크 커팅식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감사의 떡도 나눠준다.

인천온누리교회는 2006년 4월 30일 국내 8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다음세대를 세우고, 이주민을 돌보며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관련 기사 5면>.

/ 홍하영 기자

## CGN,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 2차 긴급구호팀 활동 종료

CGN이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과 교회를 돕는 '2025 사랑으로 함께' 캠페인을 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5월 30일(금)까지 후원계좌(하나은행 573-910010-60104)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이름과 주민번호 앞 6자리를 꼭 기록해야 한다(예: 김사랑 750329).

온누리교회 2차 긴급구호팀이 활동을 종료했다. NGO 더멋진세상을 중심으로 경북 의성에 파견된 2차 긴급구호팀은 보나콤(강동진 목사)과 협력해서 지난 4월 25일(금)과 26일(토) 재난센터 및 각 마을에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했다. 2차 긴급구호팀에는 NGO 더멋진 세상 직원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청년 11명이 참가했다.

Come, Lord Jesus!  
Revelation 22:20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40여 일 지상에 계시면서 십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절망, 낙심과 상실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을 <요한복음>이 집중해서 조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 받아 제자 일원이 되고, 그분을 섬기는 여성 제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을 부각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제자와 함께 하는 만남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개인적인 첫 만남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찾아왔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물리적인 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멀찌감치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끔찍한 십자에서 처형되고 수치 당하시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십자가 멀리 있었던 만큼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절규를 직접 들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는 제자임이 분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을 이끌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온 이유는 향품을 바르고 안치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미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돌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천사가 돌문을 연 것은 예수님이 무덤 밖으로

나오시도록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볼 수 있도록 열어두신 것입니다. 만일 무덤이 돌문으로 닫혀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돌문 안을 볼 수 없고, 무덤 안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제자들도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연결되어 그들이 믿을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하도록 문을 여신 것입니다.

## 사랑의 눈물, 그러나 오해와 불신의 눈물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가장 먼저, 특별한 만남으로 응답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그들도 함께 와서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누군가 시신을 훔쳐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10절). 집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과 여전히 무덤 밖에 서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11절). 이것이 사랑의 깊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부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훔쳐 간 거라고 똑같이 생각했어도 베드로와 요한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도 오해와 불신의 눈물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갔을 거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오해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한 불신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특별한 사랑 보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만남으로 응답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는 생각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오해와 불신의 눈물입니다. 이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

## 왜 울고 있느냐?

요한복음 20:11~18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을 가장 깊이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눈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데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질문하셨습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며 또다시 눈물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찾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입니다. 과거, 추억 속의 예수님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여전히 죽임 당하신 예수님만 찾고 있었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임에도 그녀의 눈은 슬픔의 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적어도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던 범위까지는 모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하신 말씀까지는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진리를 믿지 않으면 모든 상황이 반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슬픔의 눈물에 머물 수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제자가 이런 상태였다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찾아가셨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불신, 오해는 현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장 사랑했던 제자에게도 존재했습니다. 그처럼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당황하고, 오해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신앙경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책임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신화였다면 제자들이 한결같이 믿지 못하는 모습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시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나타나시는 게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고, 남아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기 위해서 때를 정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제자에게는 없는 눈물을 흘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보다 먼저, 육신의 가족보다 먼저, 특별한 사랑을 보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만남으로 응답하셨습니다.

## 오해와 불신의 눈물을 복음 전하는 눈물로

16절의 ‘랍오니’라는 호칭은 ‘랍비’보다 한 단계 더 높이는 존칭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평소 부르던 호칭을 순간적으로 부른 것입니다. 이때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분이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절).

“나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에게 매달리지 말라”입니다. “나에게 매달리는 일을 멈추라. 더는 나를 육신에 머무는 자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 땅에서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부활 이후 일어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 상태로 돌아온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도, 이 세상도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계로 만나야 한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를 너희들이 증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단지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관계를 전하라고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복음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세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부하신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을 가장 깊이 사랑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해와 불신의 눈물을 흘리는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눈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를 통해 전하기 원하셨던 새로운 관계의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 온누리세계관학교 특집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중동분쟁과 그 해결점 모색

세상의 고통은 때로 너무 낯설고 복잡해서 우리 일상과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한다. 그러나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폐허 위의 울부짖음, 무너진 건물 사이를 울면서 걷는 아이, 포탄이 떨어진 마을에서 마지막 남은 가족을 품에 안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님, 이 땅에는 왜 평화가 없는 것입니까?”

중동.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이야기가 들리던 땅. 아브라함의 발자취가 남아 있고, 예수의 탄생과 죽음, 부활이 선포된 곳. 그러나 오늘날 그 땅은 총성으로 대화하고, 증오로 나뉘며, 끝없는 보복의 고리를 끊지 못한 채 불타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민족이다. 그 땅은 영원히 전쟁의 땅이 될 것이다.”

과연 그럴까?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있었다. 어느 날 포격이 있었고, 학교 옥상 일부가 무너졌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한 무슬림 소년이 그 선교사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진짜 평화의 분이예요. 포탄 소리보다 선생님께서 얘기

해 주던 예수님 이야기가 더 크게 들려서 안 무서웠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중동의 분쟁은 정치와 무기, 국경과 종교의 싸움이 아니라 깨어진 인간의 마음에 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네 개의 큰 이야기로 본다(창조, 타락, 구속, 회복).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인간은 죄로 인해 이 세상을 켜다. 그리고 그 깨어짐의 회복에 중동이 있다. 유대와 아랍, 유엔과 무장세력, 전통과 현대가 부딪히는 소용돌이 속에서 진정한 질문은 이것이다.

“누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아파와 수니파, 미국과 이란, 서로를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선언을 하신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그리스도는 단지 ‘중재자’가 아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평화를 이루신 분이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엡 2:14)라는 말씀은 단지 교리적 진술이 아

니다. 오늘도 그 땅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절규하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할 구체적인 복음의 현실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외친다. “평화는 체결되는 게 아니라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어떤 정치적 선언도, 어떤 군사적 승리도, 인간의 마음에 참 평화를 줄 수 없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원수의 가슴을 무너뜨리고, 용서를 가능하게 한다.

이스라엘의 한 유대인 목사와 팔레스타인 무슬림 출신 기독교인 회심자가 예루살렘의 작은 방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는 서로 총을 겨눌 수도 있었던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말한다. 십자가는 중동에도 길이 되고, 중재자가 되며, 회복의 시작점이 된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념보다, 분노보다 강력한 무기임을 그들은 증언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중동과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멀지 않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는 ‘작은 중동’이라 할 수 있는 분열과 갈등을 매일 경험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증오와 침묵, 무관심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중동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국제 이슈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평화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는 오늘,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묻는다.

“나는 지금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아니면 분쟁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가?”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 그 땅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위해.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화해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다시 미움의 말을 되풀이할 것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우리 모두가 그 화평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작은 사랑을 시작하자. 그 사랑이 모여 깨어진 중동에 진정한 복음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김종일 목사  
(아신대학교(ACTS)  
중동연구원 교수)

## 특별기고

## 선거와 하나님 나라

2024년 미국 최고의 뉴스는 당연히 대통령 선거였다. 2024년 최고의 세계관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치적 충성심 정도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인생과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은 분명히 정치보다 훨씬 크고, 넓지 않다.

척 콜슨은 백악관에서 일한 후에도 정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없고, 콜슨 센터는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척은 투표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며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촉구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최고의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주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2024년 민주당 강령은 역사상 가장 낙태 친화적이고, 반가족적이었기 때문이다. 2024년 공화당은 강령에서 프로라이프 및 친가족적 공약을 모두 삭제했다. 최근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임기 때와

달리 내각에 지명된 인사 중에서 일부가 낙태와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이 확고한 기독교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추세는 이번 선거 이전부터 이어져 왔다. 실제로 조지 바나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정치와 선거에 관한 관심 부족’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한 표가 변화를 만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투표 과정의 논란에 지쳤다”고 답했다.

‘손을 깨끗이 하겠다’며 투표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경건주의의 한 형태다.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정치적 현실을 직면했던 디트리히 본회퍼는 기독교인의 경건주의는 기독교인의 책임에 어긋나는 거라며 거부했다. 그는 기독교는 성육신적 신앙이므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폭풍우’ 속에서 살아 내야만 한다고 했다. 성경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있다면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한다. 투

표는 선을 행하는 방법이다.

동시에 우리는 투표가 어떤 종류의 선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흔히 투표를 ‘차악’의 선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상황의 현실을 고려할 때 훨씬 나은 접근 방식은 ‘악을 줄이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과 정치 권력에 필요한 한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치 과정을 통해 선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투표는 ‘청지기적 행위’다. <로마서> 13장에 따르면, 정부는 악을 벌하고 선을 보상하기 위해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이 정부에 들어갈 사람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권리이자 책임 일부,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한다. 주님을 섬기는 모든 노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결국, 척 콜슨이 자주 말했던 것처럼 “구원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오지 않는다”는 말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종말도 대통령 전용

기를 타고 오지는 않을 것’을 기억하기는 더 어렵다. 선거철이든 아니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선을 위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에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콜슨 센터의 설립자처럼, 콜슨 센터의 사명은 교회가 어떤 문화적 도전이 닥쳐와도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24년에는 매우 논쟁적인 선거가 있었다. 올해에는 또 다른 도전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문화적 ‘두더지 잡기 놀이’를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과 인간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고, 부활은 우리의 소망을 보장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에게 이 문화적 순간에 소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원문: breakpoint(20241231)

#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감동

## 장애인사역본부 부서 교사 및 봉사자 모집

4월 26일(토)과 27일(일)은 '장애인주일'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축복의 날이다. 이 좋은 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장애인사역본부에서 장애인 부서 교사와 봉사자를 모집한다. 그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아름다운 동행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그 주인공들이 물 떠온 하인만 아는 감동을 노래하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 온누리사랑챔버오케스트라

#### 매주 전국 잔치!

2006년 어느 가을, 주보에서 '장애우 음악교실 교사 모집' 광고를 보았다. 장애인을 위한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접해본 적이 없던 나는 어색하지만 친절함 마음으로 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2층을 찾았다. 바이올린을 담당하는 '혜신'이라는 친구가 나를 환한 미소로 반

겨왔다. 그때 혜신이 연주하던 '좋은신 하나님' 찬양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무언가를 나누고, 가르치러 갔다가 도리어 그들의 순수한 눈빛과 어머니들의 따뜻한 배려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받고 돌아왔다. 그때 그 경험은 지금도 변함없다. 그 친구들에게 상냥하게 인사만 했는데 다음 날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왔다. 당황하며 전화를 받았더니 "선생님, 이렇게 계속 걸면 안 되는 거지요?"하고 뚝 끊어버리는 일이 있었다. 또 반복해서 연습하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질러 당황했던 적도 있었다. 레슨

하는 날에는 깨끗이 씻고 오라며 타일렀더니 네모난 목욕탕 그림을 수십 장 그려온 적도 있었다. 그들의 순수함이 나를 미소 짓게 한다.

그들은 귀하다귀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세상의 잣대와 편견이라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꽃피어 이겨내고 있다. '온누리사랑챔버오케스트라(이하 온누리 사랑챔버)' 친구들이 반복 연습 끝에 다들어서 전하는 찬양은 듣는 이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진정으로 음악을 사랑하는 온누리 사랑챔버 친구들과 음악으로 선교에

쓰임 받기를 애쓰는 어머니들, 바쁜 일정에도 묵묵히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반 하나가 된다. 음악을 통해 한 가정, 한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이뤄지는 이 귀한 사역에 지휘자 손인경 선생님의 끝없는 노력과 헌신이 있다. 온누리 사랑챔버의 모든 것이 감사이고, 은혜다. 온누리 사랑챔버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끝없이 배우고 느낄 수 있다. 매주 전국 잔치가 열리는 곳이 바로 온누리 사랑챔버다.

/ 이화진 교사(온누리 사랑챔버)

### 하나님 손에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25년 전, 온누리 사랑챔버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섬김을 시작했다. 당시 나는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며 네 살과 여섯 살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

였다.

온누리 사랑챔버의 시작은 '장애우 음악교실'이었다. 단순히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사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섬김의 시작이기도 했다. 당연히 마음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악기를 배우러 온 친구들의 성장에 나는 분명 보람이 되어야 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을 때 그 원인을 내 무능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5년을 지나는 동안, 나는 개인적인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했다. 그 은혜는 온누리 사랑챔버 섬김의 자리에서도 이어졌다. 하나님은 내가 온누리 사랑챔버 친구들을 잘 가르치도록 지혜를 주셨고, 그 친구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갖게 하셨으며, 기도

로 함께해 주시는 어머니들과 사랑의 관계도 누리게 하셨다. 나의 그릇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기에 너무 작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며 그 그릇을 넓히고 성장시켜 주신다. 온누리 사랑챔버는 단지 음악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한다.

/ 황지원 교사(온누리 사랑챔버)



▲ 온누리사랑챔버 오케스트라 25주년 기념콘서트



▲ 사랑부 여름캠프



▲ 지난 4월 19일(토)~21일(월)에 진행된 누리사랑 제주도 아웃리치 및 수련회

### 사랑부

####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2022년 여름, SNS청년부 해외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사랑부 교사를 지원했다. 아웃리치 팀에서 만난 사랑부 교사의 권유가 있었고, 가장 큰 계기는 오래 알고 지낸 두 동생의 설득

이었다. 1년 전쯤, 교회 근처로 식사하러 가는 길에 두 동생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사랑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며 설득했다. 나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의도에 넘어가 버렸고 언젠가 사랑부 교사로 섬겨야겠다고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사랑부 교사로 섬기고 있다.

사랑부 교사로서 내가 처음 맡은 청년이 동현이었다. 표현은 적었지만, 어느 순간 손을 꼭 잡아주던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동

현이와 함께한 그 1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사랑부에서는 매월 둘째 주에 전체 교사회 의를 하면서 사랑부 소속 청년과 부모님들, 교사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한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계속 쏟아졌다. 잠깐 눈을 떴는데 함께 기도하던 선생님들이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부를 섬기다 보면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도 묵묵히 사랑으로 자녀를 책임지고 키우는 부모님의 헌신을 볼 수 있다. 그 사랑에 감동해 눈물지는 적이 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나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 김태형 성도(서빙고사랑부)

문의: 010-2890-1707

### 누리사랑부

#### 누리사랑부 제주도 아웃리치의 결실

솔직히 담당목사님이 누리사랑부 제주도 아웃리치를 말씀하셨을 때 꿈같은 얘기 같았다. 그런데 몇 주 뒤 누리사랑부 제주도 아웃리치를 꼭 성사하겠다는 팀장님의 결연한 광고와

총무님의 지속적인 기도제목 공유를 보면서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소망하게 되었다.

임원진이 세 차례 현장 답사를 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과 교통, 숙소 등 2차 3일 일정을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 노력 덕분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14명이 큰 어려움 없이 제주도 아웃리치를 할 수 있었다.

기상 악화로 비행에 난관이 있었지만, 우리는 여정 내내 즐겁기만 했다. 제주 안디옥 중국인 교회에서 조선족 출신 장요셉 목사님의 한

국어 설교를 들으면서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 예배도 뜨거웠다. 언어가 달랐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흘린 눈물이 그 증거였다.

유원철 목사님의 간증은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주상절리와 한림공원 방문 등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창조 세계를 만끽할 수 있었다. 깜짝 생일 축하, 신혼여행 축하 등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서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누리사랑부 제주도 아웃리치에서 얻은 가장 큰 결실은 리더의 사랑의 크기가 구성원의 사랑을 키운다는 확신과 누리사랑부 공동체의 더 커진 사랑을 확인한 것이다. 모든 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담은 리더들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는 우리의 사랑이 모든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 최익광 안수집사(동대문중앙공동체)

문의: 010-8535-8143

예수 따라, 성령 따라 국내 온누리교회 탐방 2. 인천온누리교회

# 바로 그 땅에서 열매 맺는 ‘인천온누리교회’

## 김승수 목사에게 듣는 태동부터 성장 그리고 비전

올해는 온누리교회 창립 40주년이다. 지난 40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열방에서 ‘Acts29 비전’을 써내려가고 있다. <온누리신문>에서 Acts29 비전이 쓰이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을 찾아간다. ‘예수 따라, 성령 따라’를 주제로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와 협력 기관을 탐방하며 그 아름다운 현장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역과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한다. 그 두 번째 여정은 ‘인천온누리교회’다. 김승수 목사(인천온누리교회 담당)에게 인천온누리교회의 태동부터 성장 그리고 비전을 들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 인천온누리교회 담당 김승수 목사.  
▶ 인천온누리교회 전경.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올해로 140년 됐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첫발을 내디뎠던 그 역사적인 땅이 ‘인천’이다. 바로 그곳에 2006년 4월 30일 ‘인천온누리교회’가 세워졌다. 김승수 목사가 인천온누리교회의 태동과 성장 과정을 설명했다.

“인천온누리교회는 2006년 ‘인천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치게 하라, 성령의 물길과 하늘길이 열리게 하라’는 가슴 벅찬 비전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인천 구월동 목욕탕을 개조한 건물 지하실에서 50여 명의 성도가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많은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함께하시며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섬겨주신 모든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뜨거운 열정이 빛을 발하다!

인천온누리교회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다. 인천온누리교회 구월동 시절(2006~2015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셔서 더 이상 예배 인원을 수용하기 어렵게 됐다. 그때 하나님이 새롭게 조성되는 송도 신도시를 향한 비전을 주셨다. 곧바로 송도에 예배당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온누리교

회는 정해진 예배 처소 없이 송도컨벤시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등을 옮겨 다니며 예배드렸다.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 시기를 ‘광야 시절’이라고 부른다. 바로 이 ‘광야 시절’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뜨거운 열정이 빛을 발했다. 성도들이 ‘처치 빌더스’(Church Builders)팀을 자발적으로 꾸려 매주 주일 예배 공간을 세팅했다. 처치 빌더스팀은 매주 일요일 이른 새벽부터 강대상, 음향장비, 조명 등 무거운 장비를 트럭에 싣고 내리고, 세팅하는 고된 작업을 마다하지 않았다. 예배당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다. 성도들의 그 끊임없는 수고와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인천온누리교회가 이토록 아름답게 세워졌다.

인천온누리교회가 자리한 인천은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함께 사는 다문화 도시다. 인천온누리교회는 지역적 특성을 따라 이주민을 품고 섬기는 귀한 사역도 감당하고 있다. 인천온누리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주민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몽골어예배를 시작했다. 지금은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페르시아어까지 언어권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주민들이 모국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매주 언어권별 예배 봉사자로 섬기며 이주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국어 교육 사역’도 활발하다. 특히 고려인 8천여 명이 모여 사는 함박마을에서 ‘함박웃음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른다. 함박웃음사역은 이주민 자녀들이 언어 장벽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고 시작했다. 함박마을에 별도의 공

간을 마련해서 성도 50여 명이 이주민 자녀 80여 명에게 한글 교육과 방과 후 학습 지도, 주말 미술교육, 한국어 자격증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함박웃음사역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소외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다.

### 내일의 희망을 심는 교회

인천온누리교회의 또 다른 특징이자 강점은 ‘젊은 교회’라는 것이다. 인천온누리교회는 지금, 젊은 부부와 다음세대가 대거 유입되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자연스레 다음세대를 대한민국과 열방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는 사명을 품게 됐다. ‘내일의 희망을 심는 교회’라는 또 하나의 비전이 생겼다.

인천온누리교회 차세대에서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도록 돕는 ‘가정예배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생들이 종교전 학교 근처에 함께 모여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는 ‘드림업’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 중심의 삶을 훈련하도록 돕는 것이다. 올해 새롭게 시작된 어린이 제자훈련 프로그램 ‘어와나’(Awana)도 다음세대를 향한 인천온누리교회의 깊은 관심을 보여준다.

인천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WEB공동체’는 ‘세상에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뜨겁게 헌신하고 있다. 대학교 캠퍼스가 밀집해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캠퍼스 노방전도’와 ‘대학생 전도집회’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외 아웃리치도 활발하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역에 젊음을 바치는 청년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른다.

###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인천온누리교회 창립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영적 DNA가 있다. 바로 땅끝을 향한 ‘선교적 열정’이다. 인천온누리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해외 선교에 깊이 헌신했다. 특히 몽골을 꾸준히 섬기고 있는데, 어린이사역, 일대일제자양육, 몽골 현지 교회 청년을 미래 리더로 세우는 사역 등을 하고 있다.

인천온누리교회의 선교 비전이 교회 곳곳에 녹아 있다. 매월 개최하는 ‘리사운드’(Resound) 선교 집회는 파송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와 도전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온 성도가 선교적 삶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다. 매월 주일예배에서 공동체와 결연된 선교사들의 사역 보고 영상을 함께 보고, 연말에는 모든 파송 선교사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IOMC’(Incheon Onnuri On-line Mission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온누리교회에 깊이 뿌리 내린 선교 열정은 지난해 열린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 섬김이라는 귀한 결실로 이어졌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인천온누리교회의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인천온누리교회는 로잔대회가 열린 송도컨벤시아와 가장 가까운 교회이기에 로잔대회 준비 모임과 각종 국제회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감당했다. 또한 로잔대회 기간 매일 수백 명에서 천여 명에 달하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중보기도자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했던 ‘한국 교회 연합 중보기도회’도 인천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김승수 목사는 당시의 감격을 회상하며 인천온누리교회가 나아가갈 선교 방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로잔대회 당시 대한민국 각지에서 온 중보기도자들이 인천온누리교회에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인천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귀한 통로로 쓰임 받음을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욱 강력하게 쓰임 받아야 할 교회임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처음 뿌려진 역사적인 땅 인천에 세워진 인천온누리교회가 이제 열방을 향해 복음의 꽃을 피우려 한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의 꿈이 인천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핵심 방향인 ‘다음세대 양육’, ‘이주민 섬김’, ‘땅끝 선교’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에 한계 없이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천온누리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한 교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성경적 부모를 위한 '부모 면허'

## '하나님의 사람' 남기는 고귀한 부모

박인경 사모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오래전 캐나다에서 열린 목회자 부부 수련회에 참석했다. 한 미국인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미국 여자 릴레이팀이 바통을 놓쳐 유력한 금메달을 놓친 사건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이를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음세대에게 복음의 바통을 물려주지 못한 채 은퇴 후 해변에서 쉴 생각만 하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받을 메달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이라는 귀한 바통을 잘 넘겨줘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특히 대한민국은 자녀 교육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있다. 어디에 살지, 수입을 어떻게 쓸지 등 삶의 많은 부분이 자녀 교육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환경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은 세상의 교육 방식과 분리하기 어렵고, 남들처럼 교육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녀로 키우기 힘든 상황에 놓이곤 한다.

크리스천 부모에게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그 우선순위를 자녀 교육과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굳건히 지키는 동시에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방식을 고민하고, 신앙과 균형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는 시간과 돈, 에너지 같은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을 섬길 시간조차 없을 만큼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부모가 “일과 양육을 잘 병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며 자녀를 양육할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학부모’ 역할에만 치중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난다. 부모와의 따뜻한 소통이 줄고, 정서적 교감이 부족해진 아이들은 미디어나 게임 중독에 쉽게 빠져든다. 이는 단순히 아이의 문제가 아니다. 가

정 전체가 직면한 ‘영적 전쟁’일 수 있다. 아이를 다그치기보다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영적으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본격적인 학습 전 시기인 ‘유아기’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 부모의 역할은 첫째, 자녀와 행복한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의 뇌를 충분히 발달시켜야 한다. 이 시기는 ‘감정적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한다. 아이에게 말을 걸고, 눈을 맞추고, 반응해 주는 등 부모와 따뜻하고 행복한 상호작용이 정서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든다.

둘째,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호기심, 열정, 몰입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까꿍놀이, 곤지곤지 찰찔 같은 단순한 놀이부터 신체 활동, 상상력 놀이까지, 부모와 함께하는 재미있는 놀이는 아이의 호기심, 열정, 몰입 능력을 키운다. 이는 훗날 학습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필요한 집중력과 자기주도성의 밑거름이 된다.

셋째, 유아기는 자녀라는 나무를 키우기 위한 기초작업임을 기억하고, 여기에 드는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유아기에 부모가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아이 곁에 있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된 정서 발달은 뇌 발달, 복음 수용, 관계 형성, 학습 능력 등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가 학습 뇌가 발달하기 전인 만 3~4세부터 조기 교육에 열을 올린다. 이는 오히려 아이의 정서를 해치고,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유아기에는 학습보다 정서적 교감과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

자녀가 공부를 시작하는 ‘학령기’가 되면 부모는 다음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이의 시간표에 하나님과의 관계(예배, 말씀 묵상, 기도)를 먼저 넣어줘야 다른 공부나 활동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둘째, 공부의 참된 목적을 가르쳐야 한다. 단순히 성공이나 좋은 대학 진학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는 거룩한 목적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도록 도와야 한다. 목적이 분명해지면 아이 스스로 목

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다.

넷째, 자기 주도 학습전략을 안내해야 한다. 공교육인 학교 수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학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세상적 성공, 즉 ‘딱’을 구하다가 영적인 양식과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외면하곤 한다. ‘대학 가서 신앙생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가치관 속에서 자란 아이가 갑자기 영적으로 변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지 않으면 교회는 다녀도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신앙인으로 자랄 가능성이 크다.

자녀에게 말씀 묵상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어릴 때는 부모와 함께 그림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초등학교가 되면 성경 본문을 직접 읽고, ‘ABC 방법’(A(A title): 제목 정하기, B(Best Verse): 가장 외닿는 구절 쓰기, C(Challenge: 깨달음이나 적용 점 쓰기) 등으로 묵상을 도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QT 교재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 자체를 가까이하도록 이끄는 게 필요하다.

부모는 가정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한다. 하지만 가정의 설계도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열심히만 한다면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처럼 위험하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아버지들은 가정의 영적 리더이자 제사장 역할을 잊지 말고 감당해야 한다. 어머니들은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제사장답게 대우하며 그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도와야 한다. 부부가 먼저 영적 동지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영적 동지가 될 때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선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고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 12편 부모,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자'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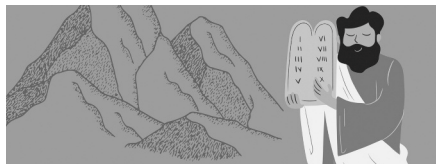


## 88. 꽃샘추위



##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4월 22~23일 본문 '민 14:17~24, 민 14:26~30'



1. 문제를 읽고 맞으면 '참', 틀리면 '거짓'을 적으세요.

- ①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어요(민 14:17~19).
- ②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민 14:23).
- ③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민 14:24).

2.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민 14:30)

- ① 모세와 아론
- ② 여호수아와 갈렙
- ③ 다윗과 사울
- ④ 아브라함과 이삭

\* 정답과 함께 '이름, 공동체, 연락처'를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차세대 우선).

\*1538호 정답자: 한지민(서빙고 유년2부), 윤하루(인천 유치부), 김하윤(부천 초등2부), 김도윤(부천 소년2부)

## &lt;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gt;를 읽고

## 예수님처럼 큰 사랑을!

예전에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엄마에게 말했다니 주머니에 있던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셨다. 동생과 함께 할아버지에게 500원씩 드렸다. 1년 뒤, 엄마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사주셨다. 그 책에서 어느 남자가 교회를 찾아와 “모두 부유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두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는군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 남자의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책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남자가 일 자리 찾는 걸 도와줬을 것 같다. 우리 모두 책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늘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

으셨다. 나였다면 십자가를 싫어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큰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매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것이다.

전우성 학생  
(서빙고 유년2부)

## 이슈(Issue) 바로보기!

## 무지개 언약과 무지개 식탁

지금은 풍요의 시대이다. 예전 보릿고개 시절처럼 ‘먹느냐, 굶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관심거리가 되었다. 근래 방송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의료인 몇몇과 연예인들이 모여 앉아 이것을 먹으면 어디에 좋고, 저것을 먹으면 무슨 병이 낫는다는 내용이다. 그 방송에 끌려 하루는 이것을 사서 먹고, 하루는 저것을 사서 먹다 보니 냉장고가 가득 차서 더 넣을 공간이 없어진다. 방송에서 얻은 정보에 덧붙여 어떤 병이 낫고, 어디 건강에 좋다는 주위의 ‘카더라’ 통신까지 따르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경비도 많이 든다. 이 혼란과 낭비를 피하려면 먹거리를 선택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우리가 먹는 식물과 채소는 눈이 부실 정도의 강한 원색을 뽐낸다. 채소의 색깔은 ‘피토케미칼’ (phytochemical)이라는 기능성 물질에서 나온다. 모든 채소와 과일이 수많은 종류의 고유한 피토케미칼을 가지고 있다. 채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물질인 피토케미칼은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다. 강한 자외선과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채소와 과일이 다양한 색깔을 가진 것은 마치 채소들이 인간들을 향해서 ‘당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를 꼭 먹어야 합니다’라고 부르짖는 것 같다. 채소들이 요란한 원색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

람 눈에 잘 띄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비타민은 크게 분류해 여섯 종류가 있지만,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보다 수백 배 많은 피토케미칼이 있다. 잘 알려진 몇 가지를 열거해 본다.

붉은색 식물인 토마토, 수박에는 ‘리코펜’이 들어있다. 리코펜은 심장질환과 전립선암을 예방한다. 주황색 식물인 당근, 호박,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피토케미칼이 있다. 카로티노이드는 처음 몸에 필요한 비타민으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항산화 작용과 함께 동맥경화를 억제한다. 녹색식물인 시금치, 부추, 완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서 황반변성의 위험을 낮춘다. 브로콜리, 양배추에도 여러 피토케미칼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붉은 고추는 잘 알려진 ‘캡사이신’을 가지고 있고, 마늘과 양파에는 ‘알리신’이 들어있다,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토케미칼의 항산화 작용 때문이다. 생명 유지에 필수인 산소는 우리 몸에 들어와 여분의 활성 산소를 만든다. 활성 산소는 정상 세포를 공격해 노화를 일으키고, 각종 질병과 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 몸에는 활성 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효소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제거 능력이 떨어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의 떨어진 항산화

효소의 작용을 도와야 한다.

산림욕을 하는 주된 목적은 ‘피톤치드’ (phytoncide)를 들이마시기 위해서이다. 피톤치드는 ‘phyton(식물)’ + ‘cide(죽이다)’의 합성어이다. 피톤치드도 피토케미칼의 일종으로 식물로부터 방출되어 주위의 미생물들을 죽이는 식물이 내뿜는 천연항생물질이다. 99세까지 88(팔팔)하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건강수명에 도움을 주는 산림욕과 채소와 과일을 즐겨야 한다.

〈창세기〉9장 11절부터 13절에서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말씀한다.

무지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무지개가 쿠퍼축제 같은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사에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 가정에서도 무지개가 동성의 상징이 아니라 홍수로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할 거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의 증거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 모두 무지개가 비가 내린 후에 나타나는 일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증거’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식탁에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상기시키는 방법이 있다.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피토케미칼 때문에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를 예방한다는 사실은 거의 상식이다. 포도에는 ‘폴리페놀’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적포도주는 동맥경화에 의한 심근경색을 막아준다. 식탁에 토마토를 준비하며 전립선 건강을 생각하고, 포도를 먹으며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을 기억하는 것은 번거롭고 입맛도 떨어뜨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생각하며 무지개 식탁을 준비하자.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의 채소와 과일로 식탁을 준비하자. 단어도 생소하고 어려운 수많은 피토케미칼을 외울 필요가 없다. 어떤 병에 효과가 있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홍수로부터 인간을 지켜주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처럼, 무지개 색깔의 다양한 채소와 과일로 준비된 식탁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것이다.



이철 장로  
(OCC 공동체, 하나로 의료재단 명예 원장, 전 연세의료원장)

## 정주호의 홀리바디(Holy Body)

## 선악과와 크리스천

‘선악과가 어떤 모양이었을까?’ 또는 ‘어떤 과일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성경에서는 선악과가 정확히 어떤 과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학적으로는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존재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6-17).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 3:6).

성경에서는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며 탐스러운 과일’로 묘사될 뿐 정확하게 어떤 과일이었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 선악과의 가능성을 가진 과일을 시사해 준다. 라틴어로 ‘사과(말룸, malum)’와 ‘악(말룸, malum)’은 철자가 같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선악과를 사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미술 작품에서도 아담과 하

와가 사과를 먹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고, 백설공주가 마녀가 준 사과를 먹는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

무화과도 가능성이 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뒤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창 3:7) 일부 신학자들은 선악과가 무화과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석류는 중동 지역에서 흔한 과일이며, 유대

할 수 없다. 다만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해석을 통해 사과, 무화과, 석류, 포도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선악과가 무엇이었느냐를 궁금해하고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선악과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시험이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런 의식도 하지 못한 채 과식과 야식, 나태와 게

## “우리가 가면을 쓴 채 뱀처럼 유혹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통에서 지혜와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선악과가 석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유대교에서는 선악과가 포도였다는 주장도 한다. 포도는 성경에서 종종 기쁨과 슬픔을 함께 상징하며, 노아가 포도주로 인해 실수했던 것(창 9:20-21)과 연관 짓는다.

성경에서 선악과의 정확한 종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과일이라고 단정

으름, 분노와 비난, 거짓과 위선, 욕심과 질투, 우울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포장되고, 위장한 선악과를 날마다 먹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경건한 삶의 순종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나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로 선한 것을 선택하고, 선하지 않은 것을 밀어낼 수 있는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

‘쓰면 뵈고 달면 삼킨다’는 말이 있다. 나에

게 불리하거나 손해가 되면 버리고, 나에게 유리한 일이면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필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와 반대로 ‘달면 뵈고 쓰면 삼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도 있다. 약의 맛은 쓰지만,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다. 말 그대로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다.

선하지 않은 것은 나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죄의식 없이 선택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오는 선한 것은 항상 본능과 욕심을 거스르고, 마음의 싸움을 하며 의지를 세우고, 늘 자기 연단을 하면서 이겨내야 한다. 우리가 가면을 쓴 채 뱀처럼 유혹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주호 대표  
(중종로공동체, 스타트레인대표, 재활과 학박사)

## 맛있는 말씀 해설

## “...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사 16:22)

‘나는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에 손을 대지 않았다.’, ‘나는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았다.’, ‘나는 단 한 번도 나의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다.’

혹시 세 가지 사항 중에서 하나도 어기지 않은 분이 계신가? 만약 계신다면 그분은 나실인의 충분한 자질이 있다(민 6:3-6).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서원기도를 드리고, 나실인으로 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구약시대에는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겠다는 서원기도 이후에 자신이 드러진 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삼손이다.

삼손은 부모님의 서원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러진 사람이었다. 비록 청소년기 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추측건대 그는 부모님의 서원기도와 지도에 따라서 나실인의 의무들을 잘 이행했을 것이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부여

해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서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 더는 부모님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될 바로 그때 문제가 발생했다. 삼손은 너무나도 쉽게 나실인으로서 두 가지 의무인 ‘취하게 하는 음료에 손을 대지 않는다’, ‘죽은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다’를 위반했을 거로 추측할 수 있다. 그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준비했던 잔치 외에도 그가 벌였을 전투를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나실인으로서 두 가지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그의 힘이 여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나실인의 의무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힘의 근원에 더 몰두하게 된다. 이쯤에서 삼손을 포함한 모든 성도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다름 아닌 ‘머리카락’에 있을 거라고 짐작하기에 이른다. 나실인으로서 그가 자부할 수 있는 사실은 오직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카락밖에 없었다.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고백한 삼손, 이 고백을

믿어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른 들릴라, 삼손의 머리카락을 아예 밀어버린 후에 그를 조롱거리로 만든 블레셋 사람들, 사랑에 눈이 멀어 원수에게 이 비밀을 말했다고 안타까워하는 우리까지.

원수들이 즐거워하며 축제를 벌이고, 삼손을 포함한 성도들이 탄식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오직 성경만이 ‘다시’를 이야기하고 있다. 왜 삼손을 포함한 블레셋의 사람들 심지어 우리까지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당시 고대 근동을 포함한 블레셋이 섬기던 ‘다곤’이라는 신에게서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떠올릴 수 없었다. 자연스레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있던 이스라엘과 삼손조차 실패한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낯설기에 기대할 수 없었다. 삼손을 포함한 블레셋, 어쩌면 우리조차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성경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삼손이 다시 일어났다고 기록하며 그 힘의 근

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셈이다.

나실인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구분’, ‘구별’ 혹은 ‘거룩한 사람’을 지칭한다. 무엇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하고, 구별하며, 심지어 거룩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과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에게 짧고 굵게 이야기한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분하고, 구별하며,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이다.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세 가지 사항 중에서 하나라도 어긴 사람들, 나실인으로 살아갈 자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부르심을 망각하거나 혹은 외면하지 않기를 소원한다.



박모세 목사  
(서산불청년부)

##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 사명을 저버린 반역과 심판

4월 28일~5월 4일까지  
〈민수기〉 16:1~19:10



## 목상포인트

1: 리더십에 대한 도전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반기를 든 자들로 인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지도자, 회중의 멸망을 막아서는 중보자, 갈라진 땅에 생매장된 반

역자 등에 담긴 교훈을 묵상하자.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다. 여기에 250명의 족장이 가담한다. 고라는 레위 자손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제사장 직분을 탐했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항심을 드러내자 하나님이 회중을 순식간에 멸하려 하신다. 모세는 곧바로 회중을 위해 중보하고, 반역의 주동자들만 갈라진 땅에 생매장되는 심판을 당한다. 향로를 들고 분향하던 250명도 하나님의 불로 소멸된다. 고라와 그 무리의 죽음을 두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시자 아론이 향로를 들고 가서 백성의 죄를 속죄한 후에야 전염병이 그친다. 하나님은 꽃이 피어 살구

(아몬드)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 앞에 두어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으로 삼게 하신다.

목상포인트 2: 하나님은 사역자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는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 주시는지 묵상하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물을 아론이 주관하게 하시고, 그와 그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주신다. 제사장은 땅의 분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를 기업으로 받는다. 레위인도 그들이 받은 십일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레위인이 바친 십일조는 제사장 아론의 몫이 된다.

목상포인트 3: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 주신다.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드는 과정과 그에 담긴 의미에 대해 묵상하자.

▶하나님은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경우에 해결할 방법을 알려 주신다. 제사장은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아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 뿌려야 한다. 그리고 남은 피와 암송아지 전체를 불사르는데 여기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붉은색 양털)을 넣어 함께 불사른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는 진영 밖에 두었다가 부정을 씻는 물에 사용한다. 이 재를 만드는 데 관련한 모든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

##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지도자에 대한 도전을 싫어하신다. 지도자에 대한 불평과 반감으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하자. ▶모세는 회중의 멸망을 막아서는 진정한 지도자였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보호받고 안전하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이 무엇인가? 그 직분의 귀중함을 잊지 말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자. ▶나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가?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일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작은 죄라도 멀리하자. 혹 죄를 지었다면 언제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자백하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자.

/ 〈생명의 삶〉 편집부

##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故 박효성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얼마 전, 박효성 집사님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오신 박효성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소천이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유가족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상실의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이윤숙 자매와 대학생 아들 이삭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깊은 슬픔의 시간을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위로로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허전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윤숙 자매와 이삭이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셔서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현재 거주하는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도록, 남겨진 법적 절차와 상속, 산재 관련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이삭이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이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려는 가족들의 결단과 걸음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과천의왕공동체 성도들

# CGN, 기독교 다큐 영화 ‘무명’ 개봉

6월 25일부터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관람

CGN이 제작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이 개봉한다. 오는 6월 25일(수)부터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관람할 수 있다. 무명은 일제강점기 그 암울한 시대, 고통받는 조선 민중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다 건너온 이름 없는 일본인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삶과 사랑을 담았다. 배우 하정우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이 영화에서는 노리마츠 마사야스(乘松雅休, 1863~1921), 오다 나라지(織田槽次, 1908~1980) 등 잊힌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노리마츠 마사야스는 일본 개신교 최초 선교사로, 1896년 ‘하나님’이라는 조선어 한 마디만 배워 조선

으로 건너왔다. 수원 최초의 교회(현 수원 동신교회)를 세웠다. 오다 나라는 ‘전영복’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활동하며 조선말로 복음을 전했다. 그는 일제탄압이 거세던 시절, 6천여 명이 모인 평양 숭실대학교 강당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용감하게 외친 인물이다. 영화 ‘무명’의 개봉이 역사적 기념일을 앞둔 시점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올해는 광복 8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을사늑약 120주년, 을미사변 130주년, 아펜젤러&언더우드 선교 140주년, 교토교회 100주년 등 한일 관계와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해다. / 홍하영 기자



기독교 다큐영화 ‘무명’ 포스터.

## 2025 온누리 회복축제 ‘온전함’

5월 14~16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온누리 회복축제 ‘온전함’이 막 오른다. 5월 14일(수)부터 16일(금)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선교관에서 열린다. 이번 회복축제는 온누리교회 회복사역본부,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교회상담사역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삶 속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고 싶거나 주변 사람들의 회복을 돕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7만 원이다. 5월 4일(일)까지 사전 등록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

준다. 이번 회복축제에서 14일 ‘마음 돌봄’, 15일 ‘정신 치유’, 16일 ‘영혼 회복’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고병인 교수(고병인가족상담연구소 소장), 채규만 교수(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권수영 교수(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이호선 교수(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남윤영 박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류경숙 박사(강남GEM 아동가족상담센터 소장), 박상미 교수(한양대학교 대학원) 등이 강의한다. 오후에는 참가자들이 자신의 필요와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선택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2-3215-3532 / 홍하영 기자



송석근 목사가 어르신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 온누리요양센터 세례식

온누리복지재단 산하시설 ‘온누리요양센터’에서 지난 4월 17일(목) 세례식이 있었다. 송석근 목사(양지온누리교회)가 송봉수 어르신(80세)과 서정애 어르신(89세)에게 세례를 줬다. 송봉수 어르신의 보호자는 “세례식을 준비해 주신 온누리교회와 온누리복지재단에 감사하

다”면서 “아버님이 세례 받은 기쁨을 잊지 않으시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온누리요양센터에서는 정기적인 세례식을 열고 있다. 매주 주일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CGN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매주 목요일에도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 이주민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5월 3일부터 매주 토 오후 2시 안산M센터

이주민선교학교 2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안산M센터 4층 만나홀에서 진행된다. 이주민선교학교 22기에서는 김태완 목사 ‘성경적 관점’, 김연경 선교

사 ‘차세대 전략적 관점’, 조경근 선교사 ‘문화적 관점’, 류영민 선교사 ‘통합적 관점’, 허만호 선교사 ‘동역적 관점’을 주제로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 4만 원. 문의: 031-491-9650

#### 4월 세례자

■서빙고  
고명희 900721  
구은영 660311  
김경미 840410  
김 윤 960929  
김재범 910802  
오진선 840825  
유아  
김리엘 230427  
김성묵 김희수  
김지한 221101  
김종우 김은령  
윤지유 230821  
윤여담 이수인  
이유진 221007

이동민 이경하  
정수빈 240322  
정상한 최새미  
■양재  
류이든 240627  
류영찬 이보미  
윤시훈 240313  
윤지성 고윤아  
윤재이 200331  
최라운  
정진서 230323  
정경모 이지연  
한다인 240109  
한새별 한아라

〈대학청년〉  
■여호수아  
단진형 940422  
최지아 020927  
■요셉  
고은아 080905  
유지영 080201  
최윤미 060202  
■하늘  
김은성 041208  
김정민 061008

■허브  
입교  
박시는 021105  
박주영 060608  
■W  
오예준 920527  
■SNS  
김연지 950124  
유인규 930603  
입교  
손혜림 970615  
이지수 931104

### 노아홍수, 그 흔적을 찾아서!

5월 17~18일 ‘창조과학 탐사여행’

창조과학선교팀에서 ‘창조과학 탐사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7일(토)과 18일(일) 태백, 삼척, 동해에서 ‘노아홍수, 그 격변의 흔적을 찾아서!’를 주제로 진행된다. 창조세계를 공부하고 탐험해보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초등학교생은 부모가 꼭 함께 참석해야 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8만 원(교통, 숙식, 입장료 포함). 문의: 010-3334-2388

### How Mission 총체적 선교 School

How Mission 총체적 선교 School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부천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5월 17일(토)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7336-6094

###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POWER IMPACT 청소년반과 부모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신동아 쇼핑센터 311호(청소년반)와 312호(부모반)에서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6월 6일(금)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청소년반 스태프도 모집한다(아웃리치 비용 일부 지원). 문의: 010-6476-0524



2025 행복이음축제에서 경희대 천호 태권도 시범단이 송판 격파를 하고 있다

### 행복 잇고, 복음 잇고!

강동온누리교회, ‘2025 행복이음 축제’ 성료

강동온누리교회가 지난 4월 20일(일) 강동구 천호로데오거리 나비쇼 핑몰 앞 광장에서 ‘2025 행복이음 축제’를 개최했다. 지역 주민과 함께 부활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다. 2025 행복이음 축제에서는 부활절 달걀 나눔,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부스 운영, 평강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과 나눔을 했다. 강동 연합찬양사역팀과 강동온유 대학부의 워십 공연, 서초C공동체의 특별 순서도 이어졌다. 지역 예술가와 단체들이 동참해 풍성함

을 더했다. 류라벨 성인전문음악학원, 경희대 천호 태권도, 유소이 캘리그래피 작가 등이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볼거리를 선사했다. 정영훈 집사(강동온누리교회)는 “행복이음 축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건강한 문화를 교류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사역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홍하영 기자

### 연애코칭스쿨 6기 참가자 모집

6월 28일 오후 1시 30분 올댓마인드 신논현점

연애코칭스쿨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28일(토) 오후 1시 30분 올댓마인드 신논현점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5월 19일(월)~6월 15일(일)까지 행가래 네이버 카페에서 하면 된다. 크리스천 미혼 싱글

남녀가 대상이다. 회비는 5만 원. 선착순 130명(남녀)을 모집한다. 이승민 목사(강촌공동체)가 강의한다. 7월 5일(토)에는 애프터 행사가 열린다. 문의: 02-794-3110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오수진 성도(서빙고 유년1부)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 1월 14일 밤 10시,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저는 36주 5일의 임신 상태로 급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이가 역태아였기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했지만, 8시간 금식 후에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에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겁이 많은 저에게 전신마취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고, 팔다리가 떨릴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안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깬 뒤 아픔 속에서도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기대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3시간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위급해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 바오(도현이)가 앰بول스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산소치료로 해결될 줄 알았던 바오의 호흡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기도삽관을 하고 폐에 신약을 투여하며, 위 출혈과 심장박동수 이상, 혈중 칼슘 수치 문제까지 겹쳐 치료가 점점 장기화했습니다. 저는 결국 아이 없이 조리원에 들어가야 했고, 그 안에서 저의 임신 기간에 있었던 사소한 행동들까지 돌아보며 죄책감과 미안

함, 우울감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제 혈압이 170까지 올라가고, 심장은 두근거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상황을 들은 교회에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유년부 이정에 선생님이 안부 전화를 주시며 <시편>을 묵상해 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에벤에셀 하나님을 붙잡으며 “<시편> 전체를 묵상하면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평안을 조금씩 되찾았고, 제 혈압도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이틀에 한 번씩 아이를 보기 위해 조리원을 나섰습니다. 놀랍게도 <시편> 150편을 다 읽고 문병 간 그날 담당교수님께 “이제 퇴원을 준비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처럼 아이의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도현이와 남편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초보 엄마 아빠라 잠을 못 자서 피곤하지만,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신경 써주신 서빙고온누리교회 유년부 목사님, 장로님, 선생님들, 그리고 성북공동체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 덕분입니다.

## ■ 장모님을 추억하며



/ 김희식 집사(양재 주경배찬양팀)

하나님의 은총과  
장모님의 기도

얼마 전, 94세를 일기로 소천하신 장모님이 생전에 사시던 거처를 방문했다. 평소 사용하시던 침구, 손때 묻은 성경책, 책상과 식탁, 옷가지 등 일상의 흔적들을 정리하던 중에 거실 한쪽 벽에 걸려있던 조그마한 액자를 발견했다. 30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던 막내딸 유선이가 교회 글짓기 시간에 작성한 글이 들어있는 액자다. 흰색 머리띠를 하고 밝게 웃는 사진도 함께 있었다. 글의 제목은 ‘우리 할머니의 신앙’이다. 원문 그대로 옮긴다.

“우리 할머니는 아주 교회를 잘 다니십니다. 모든 우리 친척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 주십니다. 저희 할머니 연세는 64세입니다. 아주 오래 사실 분입니다. 몸도 아주 건강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십니다. 할머니는 가끔 저녁마다 교회에 가셔서 철야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많은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 침을 놓으시며 전도를 하고 다니십니다. 할머니는 찬송도 잘 부르십니다. 그리고 밥도, 반찬도 맛있게 만드십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할머니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할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오십니다. 전화도 자주 하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십니다.

다.

나는 크면 우리 할머니처럼 신앙 좋은 사람이 되어 할머니를 기쁘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꼭 천국에 가실 줄 믿고 있습니다. 난 할머니가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 할머니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 먼저 교회를 다니셔서 저희 어머니도 전도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저는 어디가서나 빛과 소금이 되는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또 할머니가 기도하신 대로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겠습니다”(주일학교 초등부 김유선).

생을 마감하시기 전까지 늘 평안한 얼굴로 기도와 성경을 가까이하셨던 외할머니의 외손녀 유선이가 어언 마흔이 되었다. 신앙 안에서 두 아들 온유와 지유, 그리고 가장인 정영운 집사와 함께 LA 인근 토런스 조은교회를 섬기고 있다. 막내딸의 가정이 성실히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우리 부부가 30여 년 동안 주일예배 찬양대로 섬기는 등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장모님의 기도 덕분임에 감사하는 부활절 아침이다.

## ■ 평택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송철희 성도(평택온누리교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아내의 권유로 Why Mission 수업을 들었다. 내내는 이 수업이 우리 부부에게 좋은 수업이 될 거라고 했고, 나는 그 말을 따라 별다른 고민 없이 등록했다.

나는 내가 나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주차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 오후 2시 영어 예배를 섬기고, 십일조와 헌금을 한다. 이 상황에서 교재를 구매하고, 과제를 하면서 토요일 오후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Why Mission 수업은 솔직히 반가운 일정은 아니었다.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된다는 사실 역시 영어권인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첫 수업 날, 참가자 수와 스태프들이 보여주는 정성 어린 태도에 적지 않게 놀랐다. 선교사님들과 강사님들, 스태프들이 참가자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에 정말 감동했다.

조원들과 함께 A 선교사님을 뵈고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다. A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가 되기까지 과정, 선교 현장에서의 수많은 고난과 그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선교사님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미소를 띠며 해주셨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리더, 실천자, 혹은 따르는 자로서의 소명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교사로 직접 부르심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도와 재정적 후원, 선교사들의 수고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이번 Why Mission 수업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거대한 사명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이 알아야 하고,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이며, 설령 그것이 거절당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 ■ 새가족 등록 과정 수료 간증



/ 이한우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 하나님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출석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방송 예배로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믿음의 동역자인 친구의 한마디가 내 마음과 몸을 움직이게 했다. 당시 나는 건강적신호도 받았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강한 깨달음을 얻었다. 나태했던 영적 생활의 회복과 삶의 생기가 절실히 필요했던 순간이었다.

지난해 11월 10일, 온누리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했다. 예배 시작을 알리는 임례송 ‘내 하나님 서신 받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라는 찬양 한 소절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다.

“왜 이제 왔어. 잘 왔어”라며 하나님이 내 아픔과 괴로움, 상처투성이었던 육신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듬어 주셨다. 그때 온누리교회가 영적 기도로 굳건히 세워진 곳임을 확신했다.

올해부터 새가족 등록 과정을 시작했다. 평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무엇을 할지 기도

하고 있었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4부 예배 워십콰이어단원 모집 광고를 봤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아직 등록 성도가 아니어서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았다.

낙심하던 순간, 친구의 지인을 통해 오디션이 내일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연습 시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오디션에 임했는데 감사하게도 합격했다.

그 이후 새가족 교육 4주, 일대일제자양육 4주, 성가대 연습생 4주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첫 등단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가야 할 길을 말이다. 주저하지 않고 움직이고, 행하면 이뤄지는 놀라운 체현을 허락하셨다. 앞으로도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이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소서.”





행복한 가정 레이스

# RUN fondant

달러라퐁당 후원챌린지



달러라퐁당  
안내 및 접수

**5.10 ~ 5.24**

(접수기간 : 4.21 ~ 5.9)

**걷기, 라이딩, 러닝 등**

(자세한 내용은 퐁당APP, 퐁당홈페이지, CGN홈페이지를 참고)

2025 달러라퐁당의 후원금은 차세대, 가정 콘텐츠 제작 및 라이선싱에 사용됩니다.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